

투데이 칼럼

양보 스피치의 삶

인간의 생활은 아주 복잡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자가 개성이 뚜렷하고 잡담 맛에 살아가는 시대이므로 자기주장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므로 양보와 배려도 줄어드는 현상이다.

호감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목 중에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일때도 현명한 양보가 최고다.

여기서 조선시대 광해군 때 가마고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시집가는 신부가 타고 있는 가마행렬이 경남 하동의 한 고갯마루에 도착하였는데 고갯길은 가마 한 대가 겨우 지나 갈 수 있는 벼랑길이었다.

가마꾼들은 땀을 식히기 위해 좁은 벼랑길 앞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가마를 내려놓고 있는데 고개 건너편에서 다른 가마가 도착하였다.

그 쪽 가마도 신부의 가마였다. 좁은 벼랑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가마가 마주하게 되어 한 가마가 지



김 양 옥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교수

나가고 다른 가마가 지나가야 하는 고갯길이었다.

쉬고 있던 가마꾼들이 소리쳤다. "이쪽은 남영 조식선생의 직계 후손집 가마요 먼저 갈테니 잠시 비켜주시오!"

그러나, 상대 가마꾼들이 "이쪽 가마는 피계 이황선생의 문하생 집 가마요 그쪽이 먼저 비키시오!"라고 소리쳤다.

막다른 고갯길에서 두 집 가마꾼들이 가마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부를 태운 두 가마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맞서기문을 만난 것이다.

두 가마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양 집안 사람들과 문중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와 싸움이 되었

다. 결국 가마꾼들 싸움이 가문과 혈통, 학자들의 체면싸움이 되었다.

그 후 두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양쪽 신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양 가문의 대표들은 혼인을 위해 신랑집으로 가던 두 신부를 벼랑 아래 강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가마꾼들은 빈 가마를 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간 한심스런 이야기다.

이 사건이 있던 뒤 고개의 이름이 가마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한 쪽이 조금만 비켜주었다 라면 아무 일 없이 비켜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한 두 걸음 비켜주지 않아 새 인생을 출발하려던 두 신

부가 강물에 몸을 던져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마고개와 같은 상황에 처 할 때가 있다.

애매한 상황일 때 꼭 필요한 것이 양보와 배려다.

내가 물러서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다.

틀 다 죽는 것 보다 내가 저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양보가 없으면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다 죽을 수가 있다.

양보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양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죽을 때 그 체면도 같이 죽는 것이다.

체면도 권위도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현명한 판단을 잘하자.

살기 위해서, 일등 하기 위해 죽는 것보다 이등을 하면서라도 양보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일등 할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스피치를 통한 양보와 배려의 학습 잘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하자.

사설

전주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전주 예코시티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석제의 수변 공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주시는 농업용 저수지인 백석저수지에 수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밤나무와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멸종 위기 동물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전주 백석지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주시는 대규모 주차장과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 산책할 수 있는 수변 데크 길과 테라스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는 백석 저수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앞으로 개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주시 계획은 인위적인 공간 비중이 커 백석 저수지에 서만 볼 수 있는 나무나 철새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백석제 주변 사유지에는 카페와 같은 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백석제의 수변 녹지 기능, 생물 다양성, 경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된 수변 공원 계획은 문제가 많다.

자연 환경 조사를 먼저 실행하고 공원 부지만이 아닌 백석 저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데도 주차장은 면수가 기존 16대에서 11대로 무려 7배가 늘었다.

탄소중립 시대의 공원에 걸맞게 대폭 줄여야 한다. 잔디광장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 혹은 주차장 부지로 이동해야 한다. 공원 부지 휴경지 등에 주변 식물과 어울리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를 심거나 다층림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수변 데크 길과 조망 테라스 대신 백석 저수지 둘레길 등의 대체 시설도 검토해야 한다. 기후 변화와 도시 열섬,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일수록 건강한 도시공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남북통일운동 정병수 전북지부장

정병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FP) 전북지부장이 지난 2020년 '신통일 한국시대 비전'이란 제목의 칼럼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칼럼집은 남북통일 운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조성과 확산을 위해 언론에 투고한 내용들을 모은 것이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2019년 5월 '제6회 자랑스런 대한민국 총효대상 시상식'에서 통일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중요 정신을 통한 나라사랑, 부모사랑, 지역사랑의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또 2019년 3월 '민화협 제2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통일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정지부장은 2011년부터 참가정 운동을 기본으로 한 남북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해왔다.

2010년 이후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통일외식 교류, 판문점과 땅굴 등 안보현장 견학, 탈북민 돕기 등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에 노력했다.

지난해 5월 '신통일 한국을 위

한 THINK TANK 2022 전라북도 출범식'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각계 지도자 1백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모두에게 신통일 한국시대 도래에 대한 담론을 확산 공감을 했다. 지난해 6월의 '공북 76주년 기념과 한반도 평화통일 및 코로나19 극복기원 One Korea 피스로드 2021 전라북도 통일대장정' 행사도 성공리에 개최됐다.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이 속히 소멸되고 다시금 활기찬 일상이 되어야 한다. 향후 5-6년의 기간은 한반도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이 대 준비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모두 평화통일 운동의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 정병수 지부장의 남북통일운동에 대한 열정이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3급(급출발, 급가속, 급정지)하지않는 안전운전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달린자들은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워밍업을 하고, 출발하면 단백질을 태우며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달린다.

출발과 동시에 고속 질주를 하면 과부하가 걸려 오버 페이스가 되며 결국 페이스가 떨어지고 원하는 페이스를 펼칠 수가 없게 된다.

운전자들이라면 급출발로 시동이 꺼진 경험과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급가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급출발은 급가속으로 이어져 운전자나 주변에서 운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소비량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앞차의 돌발 상황에 따른 급정차 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RPM 2,000이하로 가도록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하며, 경제속도인 60~80km로 주행하고, 급정차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신일섭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노인 안고 피란 버스서 내리는 마리우폴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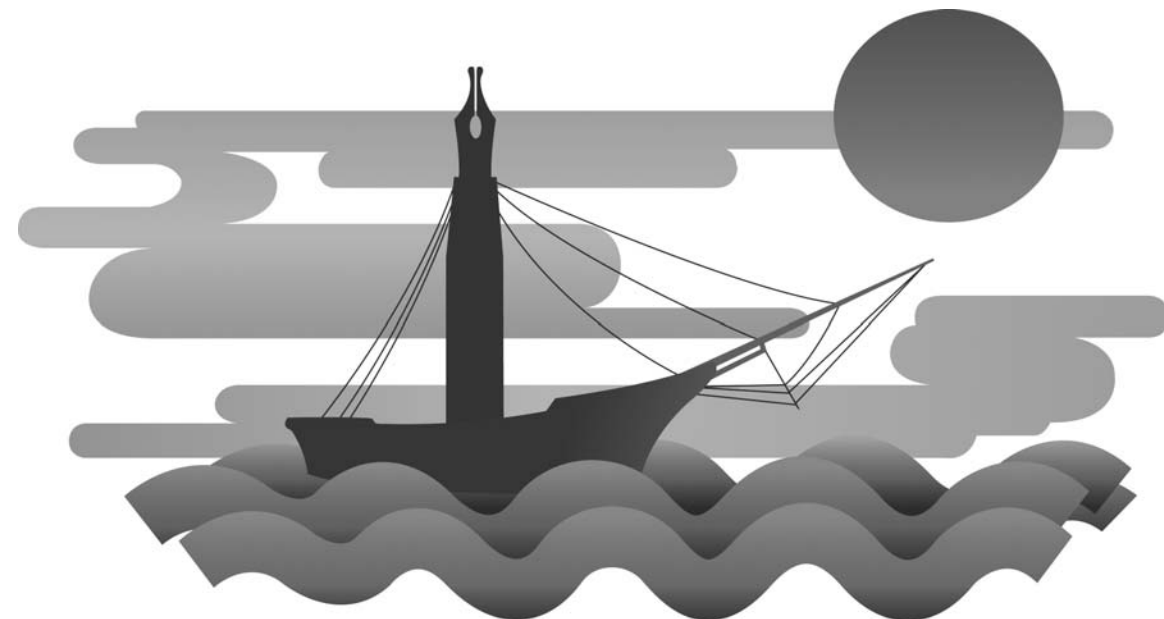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의 난민 센터에 도착한 마리우폴 피란민 남성이 노인을 안고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조정관은 마리우폴 일대 민간인 127명이 자포리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